

전문도서관의 이슈와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ssues and Policy Proposals of Specialized Libraries

노 영 희 (Younghee Noh)*

박 양 하 (Yang Ha Park)**

〈 목 차 〉

I. 서론	IV. 결 과
II. 이론적 배경	V.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
III. 연구설계 및 방법론	VI. 결론 및 제언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슈화가 곧 전문도서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전문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서 전문도서관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사서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전문도서관 발전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주제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도서관에 대한 구분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전문도서관 사서의 직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전문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정보서비스가 개발될 필요도 있다. 여섯째, 전문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 중 국가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공유가능한 정보원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문도서관은 도서관 평가에 한 도서관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도서관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전문도서관 우수사례집의 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전문도서관 이슈, 정책제안, 활성화 방안, 전문도서관 발전방안

ABSTRACT :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revitalization plans for specialized libraries by referring to various issues regarding specialized libraries in the sense that the issue of specialized libraries can soon become an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librarie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specialized libraries were derived, and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was investigated through surveys. The policy directions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ibrary Development Plan' should strengthen the part related to the specialized library development plan. Second, topic maps for specialized libraries in Korea are needed. (Second, the topic map for specialized libraries in Korea is needed.)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to configure multiple councils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pecialized library. Fourth, an analysis of the duties of specialized library librarians should be made. Fifth, professional information services that specialized libraries can perform need to be developed. Sixth, among the information resources owned by specialized librarie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establish and jointly utilize information resources that are valuable and shareable as national resources. Seventh, specialized libraries should allow every library to participate in library evaluation, and make improvement plans for specialized librar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Eighth, it is also necessary to publish a collection of best practices for specialized libraries.

KEYWORDS : Specialist Library Issues, Policy Proposal, Activation Plan, Development of Specialized Librar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yhpark@nrc.re.kr / ISNI 0000 0004 5939 9861)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1년 8월 24일 • 최초심사: 2021년 8월 27일 • 게재확정: 2021년 9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129-155,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3.202109.129>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전문도서관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문도서관은 도서관 유형 중 하나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전문도서관은 2019년 기준으로 612개이다. 2020년 기준 학교도서관은 11,678개, 대학도서관 453여개, 공공도서관 1,134개이며,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이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그러나 과거 각종 전문기관에 독립 부서로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전문도서관의 규모와 위상은 양적인 비율에 비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시스템에서 전문도서관은 기타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다(노영희, 2021).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만을 보았을 때 전문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은 타관종의 내용에 비해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13개의 핵심과제 및 36개의 추진과제의 과제명칭으로 ‘전문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추진과제로 들어가서 세부추진과제를 분석해 보면, 전문도서관 전문자료의 디지털화 지원, 전문도서관 현황 파악, 전문도서관 인력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법률자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법률전문도서관 역할 강화 등의 몇 가지 세부사업이 등장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수립 집필위원으로 전문도서관 사서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고, 정책개발에 참여한 수많은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연구자들의 관심도도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전문도서관’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가진 논문을 검색해 보았을 때 2003년 이래 2020년까지 약 18년 동안 겨우 42건의 논문이 이러 저러한 주제를 가지고 출판이 되었으며, ‘공공도서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의 731건과 비교해서 5.75%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하다(노영희, 2021). 1년에 겨우 2건 정도의 논문이 출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최근 5년간에는 겨우 6편의 연구논문이 발행되었을 뿐이며, 전문도서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전문도서관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처럼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전문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 전문도서관 고유의 업무에 비해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특수한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도서관 운영이라는 주제가 출판을 통해서 이슈화 되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로 정책입안자나 정책수립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의 유형에 대한 구분이나 유형의 명칭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의학전문도서관, 병원도서관, 보건소 도서관, 정부기관 소속 도서관, 출연연도서관을 모두 전문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환경에 맞추어서 정책을 내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사립영역의 전문도서관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고민하게 되면서 전문도서관에 대한 정책은 손을 놓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슈화가 곧 전문도서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정부정책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이슈

제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전문도서관에 대한 정부정책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책적 관점에서 전문도서관 이슈를 살펴보았다.

첫째,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대상으로서의 전문도서관이다. 도서관 정책에서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방안으로 대출증 공유시스템 ‘책이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도서관이 참여도서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다. 여기에서의 전문도서관의 역할은 도서관에 소장 중인 유무형 자료의 대출 및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이슈는 사립 전문도서관의 경우 공공서비스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원활할지에 대한 문제와 추가적인 업무 수행을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적 영역의 기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현재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해야 하며, 사서와 기관의 역할 확대를 기관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도서관 유형별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이다. 전문정보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특히 생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하기 편한 전문정보(학술정보, 기후정보, 건강정보, 법률정보, 공공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전문정보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은 통합 주관 부처가 없이 다양하고, 사립 전문도서관이 많아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2019년 기준 전문도서관이 612개관이라면, 이러한 도서관의 소속기관 유형의 구분이 필요하고 제공하는 전문정보의 유형 구분도 필요하다. 또한 특정 기관에 소속된 이러한 전문도서관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서관 운영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도서관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전문도서관이 사적 영역에 속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도 도서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문도서관 중 우수 도서관을 표창하고 우수도서관들의 사례들을 매년 발표하면, 전문도서관 소속 기관장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전문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전문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바라듯이 전문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국민이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정부정책에서는 대국민서비스 대상이 되는 전문정보를 국가 환경·기후 정보, 국가 보건·의료 정보, 국가 공공 정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기관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 공공 정보제공주체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주로 정부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도서관이다(2018년 기준 전문도서관협의회 208개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문도서관 현황 파악이 있으며, 이것이 세 번째 주요 정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매년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갱신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도서관에 대한 현황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에의 참여유도를 통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며, 매년 전문도서관 운영자들이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등록 시기에 자체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즉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도서관의 사서와 운영자가 도서관 운영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별도의 정책으로 빼 놓고 있지만, 전문도서관 인력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는 전문도서관 현황 조사 영역 중 인력현황 파악에 포함되며, 세부적으로 전문도서관 인력배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력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전문도서관의 정책은 전문도서관 전문자료의 디지털화지원이다. 정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협력 사업으로 전문도서관 소장자료와 기관에서 발행한 희귀정책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수행·지원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정보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정책의 경우 현재 전문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도서관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도서관에 대한 혜택의 체감도가 높을 경우에 나머지 도서관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세부추진과제에서 전문도서관과 관련된 5개 세부과제를 도출해서 분석해 보았다. 해당 발전계획의 13개의 핵심과제와 36개의 추진 과제에서는 '전문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되지 않고, 세부과제 유형에서 5개 정도의 정책적 논의가 언급되어 있다. 이는 다른 도서관의 유형에 비해 양적으로도 현저하게 부족하며, 관심도를 나타내는 내용면에서도 턱없이 약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에서마저 희미하게 드러난다면 전문도서관의 미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전문도서관 관련 선행연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문도서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른 유형의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주제는 크게 경영전략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연구, 운영평가와 관련된 연구, 서비스와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 직원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 전문도서관 기준과 관련된 연구, 장서개발과 관련된 연구, 웹서비스 관련 연구 등이다.

경영전략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연구분야는 전문도서관과 관련된 다른 주제의 영역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연구결과가 나온 영역으로 평가된다. 일단 경쟁환경에서의 전문도서관 경영전략 관련 연구(이용재, 2004), 국가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도서관 경영전략(최선희, 2008), 디지털환경에서의 전문도서관 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연구(황재영, 이응봉, 2006), 전문도서관 마케팅 경영전략(이용재, 2007), 전문도서관 기반의 지식경영방법론 연구(노정란, 2003), 연구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협력과 정책현안 연구(고형근, 2002), CRM 기법의 전문도서관 적용 방안(박여원, 2004) 등으로 다양하다. 전문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각종 경영전략이나 협력방안, 그리고 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최근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운영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관련 연구(박희숙, 정동열, 2008), 전문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김상준 외, 2008),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의 분석 및 진단연구(한중엽, 차성중, 2013) 등이다. 전문도서관 영역은 타 관중에 비해 평가에 있어 다양한 주의사항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 상황에 맞는 자체 평가지표로 평가를 받기 보다는 모기관의 행정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노력대비 저평가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도서관 평가를 기반으로 도서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평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의 개선과 관련된 연구나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 제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보여진다. 최근에 노영희(2021)는 평가지표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전문도서관 600여 개 기관 중 통계입력에 참여하는 전문도서관은 10%도 되지 않는 40개 기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전문도서관 통계를 알 수 있는 전수 조사의 필요성, 전문도서관에 사용되는 명칭 통일의 중요성(정체성 확립), 전문도서관에 대한 주제 분류의 필요성, 전문도서관이 통계조사에 참여 독려, 전문도서관이 기타 통계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국가도서관 및 대형 전문도서관의 통계 입력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서비스와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로 전문도서관 정보봉사의 현단계(김용근, 1997)는 전문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문도서관 서비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정혜경, 2005) 념으로써 전문도서관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이용자 피드백을 이용한 전문도서관 전자계시관 개선 연구(임지수, 2002),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한 전문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연구(김정희, 김태수, 2009), 디지털 환경의 전문도서관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평가(이명희, 백현주, 2014) 등이 있다.

직원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로 전문도서관 사서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신두재, 1997), 기관특성과 개인환경에 따른 전문도서관 직원의 직무만족도 연구(한종엽, 서만덕, 2013)가 있을 뿐이다. 사실 전문도서관 사서의 직무분석과, 역할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는 모기관의 역할 변화와 시대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의 직무와 사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전문도서관 사서의 역할의 변화가 타 관중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전문도서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도서관의 경우 직무분석연구와 역할모색 연구가 상당 수 수행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 기준과 관련된 연구도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유형의 도서관 기준이 지속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전문도서관의 기준도 개정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또한 활발하다고 할 수 없으며,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중 전문도서관 기준의 의의와 특징(김창근, 2004) 연구와 전문도서관 기준의 동향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김홍렬, 2012)가 주요 연구로 보여진다.

장서개발과 관련된 연구로는 2014년에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연구(김미라, 2014)가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서평가에 관한 사례연구(조성자, 1992), 그리고 장서개발을 위한 공동수서의 방법과 전략에 관한 연구(차미경, 2001), 전문도서관 수서업무 전산화(신동민, 1985)가 있다. 장서평가나 장서개발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갱신되고 발전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관련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웹서비스 관련 연구로는 아주 초창기에 수행된 전문도서관 내에서의 외부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를 분석하는 연구(황금숙, 1985)와 전문도서관 웹페이지 설계기준(이은희, 1999), 전문도서관 홈페이지의 외부 이용자 웹 접근성(심우섭, 2013), 전문도서관 전자계시관(임지수, 2002), 사서간 메일링리스트 활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유정인, 1999) 등이 있다. 최첨단 기술이 빠르게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전문도서관에서 많은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전문도서관과 관련하여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논문을 통한 기술 소통에 대한 기회가 적어 효율적인 기술 및 데이터 공유의 부진으로 나타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았을 때, 크게 네 가지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로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논점이 도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빅데이터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소장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에서 정보분석서비스 및 서비스 방법의 고도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해당기관에 소속된 사서에 의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전문도서관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다른 유형의 도서관 관련 연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연구 활동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구주제도 그다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도서관 기준이나 전문도서관 평가는 전문도서관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주제로 지속적인 개선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편의 연구로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전문도서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전문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전문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은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례나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 사서 차원에서 연구를 통해 전문도서관 전반에 대한 정책 실행 수준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도출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필요성 제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은 정책 결정에서 전문도서관의 내용이 부족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도서관 유형 구분을 살펴보면 전문도서관이 하나의 관종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도서관으로 분류되어 교도소 도서관 및 병영도서관과 함께 나오고 있다. 이는 전문도서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문도서관 소속 사서나 연구자 모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 관련 정부 정책과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전문도서관의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미래지향적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수행된 연구논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수행 수, 연구수행 내용, 이들이 제기하는 전문도서관의 문제점들과 그들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둘째,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도서관 발전 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전문도서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주요안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정책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문헌분석결과와 정부정책에서 도출한 이슈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도서관이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이 있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도서관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문도서관과 관련하여 매우 미진한 연구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정부정책의 다양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표 1〉 연구절차 및 연구내용

단계 및 연구절차		연구 내용
1단계	문헌분석	- 지난 30년간의 연구논문 분석 - 제3차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 전문도서관 관련 정책 도출
2단계	전문도서관 관련 문제점 및 이슈 도출	- 정부정책에서 나타난 전문도서관에 대한 관심 - 학계의 연구결과물에서 나타난 전문도서관 이슈
3단계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행
4단계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시	- 인식조사결과 및 문헌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시

2. 설문설계

본 연구는 학계에서는 물론 국가에서도 전문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정책에서 전문도서관이 언급되는 정도나 학술지에 실린 전문도서관 관련 주제의 논문의 계량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전문도서관에 대한 국가 및 학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도서관 관련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전문도서관 현황을 파악하는 문항, 현재 전문도서관에서 사서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 및 역할, 전문사서의 위상, 전문도서관의 문제, 전문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 지원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슈화가 곧 전문도서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여 전문도서관 사서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 2>와 같은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관련 연구(김상준 외, 2008; 박희숙, 정동열, 2008; 한중엽, 차성중, 2013), 도서관서비스 품질관련 연구(이명희, 백현주, 2014; 임지수, 2002), 직무만족 관련 연구(한중엽, 서만덕, 2013), 전문도서관 기준관련 연구(김창근, 2004) 등을 총체적으로 참고하였다.

<표 2> 설문구조 및 설문내용

구분	설문내용	측정방법	문항 수
일반사항	성별 (남, 여)	단일선택	2
	연령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문도서관 운영 현황	근무하는 기관의 도서관의 명칭 (자료실, 도서관, 정보센터, 기타)	단일선택	7
	소속 전문도서관 유형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기타)		
	소속부서 (도서관 단독, 사업(연구)기획, 경영(행정)지원, 지식정보, 성과확산(출판, 홍보), 정보화, 기타)		
	운영인력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업무전임여부 (전임, 겸임)		
	도서관 운영(장서관리) 예산 집행 방식 (도서관 자체 예산, 소속부서 운영비, 타 부서 사업비 할당, 기타)		
	회원으로 가입한 협의체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전문도서관협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국회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역할 인식	구성원 개인의 요청 자료 확보 및 제공	5-Likert	10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장서 구성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분석 자료 생산(동향 브리프 등)		
	기관 산출물 관리 및 보존(출판, 저작권, 보존 공간 관리 등)		
	교양 도서의 대출 반납		
	기관 홍보 및 성과확산(이벤트, 홍보자료 배포, 정보시스템운영 등)		
	회의 및 세미나 지원(공간, 장비, 자료 등)		
	유관 도서관 협력 서비스 기획 운영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공간, 특화자료 제공 등)		
	기타 의견		
전문도서관 운영 문제점 인식	정책결정에 전문도서관 사서의 개입 부족	5-Likert	15
	기관의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정책 입안 시 배제되는 경향		
	공동체 자체적으로 정책 이슈 제기 시 소극적인 분위기		
	문헌정보학계의 관심 부족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관심 부족		
	기관 구성원의 이해 부족		
	기관장의 이해 부족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강력한 통합 협의체의 부재		
	전문 분야 및 운영 차이에 따른 전문도서관 유형 구분의 부재		
	주제 및 운영 차이에 따른 유형별 소통 채널의 부재		
	과도한 겸임 업무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 미흡		
	독립 예산 운영의 부족		
	주요 담당업무 상이로 인한 통합 의견 수렴의 어려움		
기타 의견	자유 응답		

구분	설문내용	측정방법	문항 수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서관종합발전계획수립 시 적극적인 의견 개선	5-Likert	15
	전문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증장기 정책추진 계획 수립		
	도서관 통계의 적극 참여를 통한 현황 평가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유형별 지원 정책(주제별, 모기관 유형별 등)		
	전문도서관 통합협의체 권한 강화로 실질적 운영 지원 역할 증대		
	공식적인 유형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인력 및 업무 우선순위 보장을 위한 지침 개발		
	소통 및 교육의 전문성 강화		
	공유 가능한 정보원 통합 구축 및 공동 활용 기관 운영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독립 예산 지원		
	통합협의체 주도의 핵심 자원 공동구매 지원		
	전문도서관 인식 개선 자료 개발(우수 사례집 등)		
	전문도서관의 독점적 특화 정보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 개발		
	직무분석을 통한 재교육 및 학부교육과정 개발		
향후 전문도서관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기타 의견	자유 응답		
계			49

설문은 2021년 1월 5일부터 3월 20까지 거의 세 달간 진행되었으며, 전문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등재된 전문도서관 중 Every 5th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121개 관 전화), 긴 기간의 노력에도 설문지의 회수율이 낮아 전문도서관협회의 커뮤니티 방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회수율은 40.49%이다.

IV. 결 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총 51명의 응답자 중 남자는 41.18%(21명), 여자는 58.82%(30명)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 52.94%(27명), 40대 35.29%(18명),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5.8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남	여	계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N	21	30	51	3	18	27	3	51
%	41.18	58.82	100.0	5.88	35.29	52.94	5.88	100.0

2. 전문도서관 운영 현황

전문도서관 운영현황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도서관 명칭, 소속 전문도서관 유형, 소속부서 등을 포함하여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이는 설문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통계나 평가 등을 통해서 파악하기 힘든 정보를 조사하고자 함이다.

가. 근무하는 기관의 도서관 명칭

근무하는 기관의 도서관 명칭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41.18%로 가장 높았고, 자료실은 23.53%이다. 기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35.29%(18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술정보실(6건), 정보자료실(3건), 도서실(3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홍보실이나 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명칭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모 기관의 이용자에게 부서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타 관중에 비해 전문도서관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기타로 응답한 명칭 중 홍보실이나 팀 등 도서관임을 알 수 없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담당 사서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자와 연구자, 그리고 국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4〉 근무하는 기관의 도서관 명칭

구분	N	%
자료실	12	23.53
도서관	21	41.18
정보센터	0	0.0
기타	18	35.29
계	51	100.0

나. 소속 모기관의 유형 및 소속부서

설문응답자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소속 모기관의 유형 및 소속 부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소속기관으로 연구기관이 52.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23.53%, 정부부처 17.65%, 기업체 5.8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비율은 아니며, 다만 응답자의 소속기관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속부서를 조사한 결과, 지식정보담당부서 29.41%, 도서관 독립부서 및 성과확산(출판, 홍보)부서 각각 23.53% 등으로 나타났다. 타 관중의 도서관에 비해 전문도서관은 소속 기관에 따라 이용자 대상이 연구 지원, 기관의 문제 해결, 업무 능력 향상, 휴게 등 기대되는 도서관 핵심 업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소속 부서에 따라 도서관 업무 그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조사를 통해 모기관의 유형과 소속 부서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 도서관 사서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 및 전문도서관 지원정책 참조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와 것과 같이 독립부서의 비율 못지않게 지식정보담당부서, 성과확산부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속 부서의 경우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지식을 다루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부서의 소속이 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독립부서인 경우나 지식정보담당부서 등은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도서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소속 모기관의 유형 및 소속 부서

구분	모기관 유형 및 부서	N	%
소속 모기관의 유형	정부부처	9	17.65
	공공기관	12	23.53
	연구기관	27	52.94
	기업체	3	5.88
	계	51	100.0
소속부서	도서관 독립부서	12	23.53
	사업(연구)기획부서	3	5.88
	경영(행정)지원부서	3	5.88
	지식정보담당부서	15	29.41
	성과확산(출판, 홍보)부서	12	23.53
	정보화부서	6	11.77
	기타	0	0.0
	계	51	100.0

다. 도서관 운영 인력 수 및 업무전담 여부

설문응답자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도서관 인력을 보았을 때 1인 도서관과 4인 이상인 곳이 각각 41.18%를 차지했으며, 아예 없거나 2인 이상인 곳이 10% 정도 되었다. 설문 응답 도서관만을 보았을 때 전문도서관 간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도서관이거나 4인 이상인 경우가 각각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점임의 비율을 보았을 때 50% 수준으로 도서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의 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 내 도서관의 위상 및 요구 업무 변화 또는 소속부서에 따른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 결여, 선임 사서의 정년 후 사서직 외 신규 직원 대체 채용 등, 최근 전문도서관 커뮤니티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채용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도서관 운영 인력 수 및 업무 전담 여부

	구분	N	%
운영인력 수	1인	21	41.18
	2인	0	0.0
	3인	9	17.65
	4인 이상	21	41.18
	계	51	100.0
전임 여부	전임(도서관 운영만)	27	52.94
	겸임(소속부서의 다른 업무 포함)	24	47.06
	계	51	100.0

라. 운영(장서관리) 예산 집행 방식

장서관리 예산을 포함한 도서관 운영비 전체의 평균으로 집행 방식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76.4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볼 수 있다. 그러나 2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타 부서의 사업비를 활용하거나 소속부서의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도서관의 예산 집행은 기관 내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을 받으며, 회계연도에 따라 규모와 집행 방식의 변경이 많은 영역이다. 또한, 타 관중에 비해 집행에 대한 해석이 매우 까다로워서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집행의 적절성 시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영역으로 본 조사를 통해 전문도서관 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여 운영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예산 집행 방식을 도서관 자체예산 책정방식으로 차츰 전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7〉 운영(장서관리) 예산 집행 방식

구분	N	%
도서관 자체예산	39	76.47
소속부서 운영비	6	11.77
타 부서 사업비 활용	6	11.77
기타	0	0.0
계	51	100.0

마. 회원으로 가입한 협의체

응답자가 소속된 전문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협의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가 한국전문도서관 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국가정책정보협의회와 한국학술정보협의회에 각각 42개, 한국도서관협의회에 36개가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기타로 FAO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응답하

였다. 타 관종의 도서관과 달리 전문도서관은 하나의 독립 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관 내에서도 독립부서가 아닌 부서 내 단일 업무로 운영되는 추세이다. 또한 대학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같이 정부 부처를 구심점으로 하는 단체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협회와 같은 이익단체에서 전문도서관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공동의 문제와 특화된 전문도서관 유형별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본 조사 결과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전문도서관의 협회에 대한 가입률은 비교적 높으며, 이는 긍정적이 효과라고 판단이 되지만 한국도서관협회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8〉 회원으로 가입한 협의체 (중복 응답)

구분	N	비고
한국도서관협회	36	
한국전문도서관협회	51	
국가정책정보협의회(국립중앙도서관)	42	
한국학술정보협의회(국회도서관)	42	
기타	3	FAO한국협회

3. 전문도서관에 대한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본 장에서는 전문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도서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사서들이 생각하는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가. 전문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

먼저, 사서들이 전문도서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결과는 구성원 개인의 요청 자료 확보 및 제공(4.77),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장서 구성(4.53), 기관 산출물 관리 및 보존(출판, 저작권, 보존 공간 관리 등)(4.53),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분석 자료 생산(동향 브리프, 리포트 메일링 등)(4.12)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도서관의 역할은 주로 구성원들의 업무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장서개발과 분석서비스인 것으로 보이며, 전문도서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진다. 기타 의견으로 소속 부서의 특성상 연구지원 기능 외 연구성과 분석 등의 업무 개발 역할, 소속 구성원만을 위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및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 모기관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어떤 역할이든 조력하기, 전문지식정보 구축 및 심층정보서비스 제공 보다 구체적으로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 9〉 전문도서관의 역할

문항	N	%	M	Std	
구성원 개인의 요청 자료 확보 및 제공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77	0.428
	중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0	0.0		
	중요하다	12	23.53		
	매우 중요하다	39	76.47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장서 구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53	0.703
	중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6	11.77		
	중요하다	12	23.53		
	매우 중요하다	33	64.71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분석 자료 생산 (동향 브리프, 리포트 메일링 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12	0.683
	중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9	17.65		
	중요하다	27	52.94		
	매우 중요하다	15	29.41		
기관 산출물 관리 및 보존 (출판, 저작권, 보존 공간 관리 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53	0.703
	중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6	11.77		
	중요하다	12	23.53		
	매우 중요하다	33	64.71		
교양 도서의 대출 반납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41	0.92
	중요하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18	35.29		
	중요하다	18	35.29		
	매우 중요하다	6	11.77		
기관 홍보 및 성과확산 (이벤트, 홍보자료 배포, 정보시스템운영 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88	0.84
	중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12	23.53		
	중요하다	24	47.06		
	매우 중요하다	12	23.53		
회의 및 세미나 지원 (공간, 장비, 자료 등)	전혀 중요하지 않다	6	11.77	3.29	1.188
	중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2	23.53		
	중요하다	21	41.18		
	매우 중요하다	6	11.77		
유관 도서관 협력 서비스 기획 운영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5.88	3.77	1.124
	중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3	5.88		
	중요하다	27	52.94		
	매우 중요하다	12	23.53		
대국민정보제공서비스 (공간, 특화자료 제공 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59	1.043
	중요하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15	29.41		
	중요하다	15	29.41		
	매우 중요하다	12	23.53		

나. 전문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

전문도서관 운영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헌정보학계의 관심 부족(3.94)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도서관 관련 연구논문의 부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전문도서관 사서들도 전문도서관 관련 정책이나 연구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전문도서관 발전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 자체적으로 정책 이슈 제기에 소극적인 분위기(3.88),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관심 부족(3.82), 기관 구성원의 이해 부족(3.82),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강력한 통합 협의체의 부재(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도서관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 독립된 기구가 아닌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소속부서의 한 업무로 인식, 독립된 업무 인식 필요, 기타 업무의 겹직과 더불어 도서관 업무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전문도서관은 특히 1인 사서 비율이 높아 소수직렬인 경우 승진 포상에서 소외 및 업무 추진 시 공감대 형성 어렵고 현안에 차순위 등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표 10〉 전문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

문항		N	%	M	Std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서의 의견 개진 참여 기회 부족	전혀 그렇지 않다	3	5.88	3.71	1.238
	그렇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3	5.88		
	그렇다	21	41.18		
	매우 그렇다	15	29.41		
기관의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정책 입안 시 배제되는 경향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53	1.102
	그렇지 않다	12	23.53		
	보통이다	12	23.53		
	그렇다	15	29.41		
	매우 그렇다	12	23.53		
공동체 자체적으로 정책 이슈 제기에 소극적인 분위기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88	0.973
	그렇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9	17.65		
	그렇다	21	41.18		
	매우 그렇다	15	29.41		
문헌정보학계의 관심 부족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94	0.947
	그렇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6	11.77		
	그렇다	24	47.06		
	매우 그렇다	15	29.41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관심 부족	전혀 그렇지 않다	3	5.88	3.82	1.053
	그렇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6	11.77		
	그렇다	27	52.94		
	매우 그렇다	12	23.53		

전문도서관의 이슈와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문항		N	%	M	Std
기관 구성원의 이해 부족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82	1.108
	그렇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9	17.65		
	그렇다	15	29.41		
	매우 그렇다	18	35.29		
기관장의 이해 부족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59	1.099
	그렇지 않다	12	23.53		
	보통이다	9	17.65		
	그렇다	18	35.29		
	매우 그렇다	12	23.53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강력한 통합 협의체의 부재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82	0.865
	그렇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15	29.41		
	그렇다	21	41.18		
	매우 그렇다	12	23.53		
전문 분야 및 운영 차이에 따른 전문도서관 유형 구분의 부재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47	0.924
	그렇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15	29.41		
	그렇다	21	41.18		
	매우 그렇다	6	11.77		
주제 및 운영 차이에 따른 유형별 소통 채널의 부재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59	0.853
	그렇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5	29.41		
	그렇다	24	47.06		
	매우 그렇다	6	11.77		
과도한 겸임 업무	전혀 그렇지 않다	6	11.77	3.29	1.375
	그렇지 않다	12	23.53		
	보통이다	6	11.77		
	그렇다	15	29.41		
	매우 그렇다	12	23.53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 미흡	전혀 그렇지 않다	3	5.88	3.35	1.036
	그렇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8	35.29		
	그렇다	18	35.29		
	매우 그렇다	6	11.77		
독립 예산 운영의 부족	전혀 그렇지 않다	3	5.88	3.12	1.143
	그렇지 않다	15	29.41		
	보통이다	12	23.53		
	그렇다	15	29.41		
	매우 그렇다	6	11.77		
주요 담당업무 상이로 인한 통합 의견 수렴의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3	5.88	3.59	1.203
	그렇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5	29.41		
	그렇다	12	23.53		
	매우 그렇다	15	29.41		

다.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전문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소통 및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독립 예산 지원이 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중장기 정책추진 계획 수립과 도서관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유형별 지원 정책 마련(주제별/모기관 유형별 등)이 각각 3.94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여 정책입안자 및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전문도서관 통계가 포함되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침이 있으면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개인이나 기관의 어려운 점은 법률이나 지침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해 볼 만하다.

〈표 11〉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

문항		N	%	M	Std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88	0.973
	중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9	17.65		
	중요하다	21	41.18		
	매우 중요하다	15	29.41		
전문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중장기 정책추진 계획 수립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94	0.732
	중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15	29.41		
	중요하다	24	47.06		
	매우 중요하다	12	23.53		
도서관 통계의 적극 참여를 통한 현황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59	0.779
	중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21	41.18		
	중요하다	21	41.18		
	매우 중요하다	6	11.77		
도서관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유형별 지원 정책 마련 (주제별/모기관 유형별 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94	0.947
	중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15	29.41		
	중요하다	15	29.41		
	매우 중요하다	18	35.29		
전문도서관 통합협의체 권한 강화로 실질적 운영 지원 역할 증대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71	0.965
	중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24	47.06		
	중요하다	9	17.65		
	매우 중요하다	15	29.41		

전문도서관의 이슈와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문항		N	%	M	Std
공식적인 유형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5.88	3.47	1.046
	중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21	41.18		
	중요하다	15	29.41		
	매우 중요하다	9	17.65		
인력 및 업무 우선순위 보장을 위한 지침 개발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77	1.012
	중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5	29.41		
	중요하다	15	29.41		
	매우 중요하다	15	29.41		
소통 및 교육의 전문성 강화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06	0.645
	중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9	17.65		
	중요하다	30	58.82		
	매우 중요하다	12	23.53		
공유 가능한 정보원 통합 구축 및 공동 활용 기관 운영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77	0.651
	중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18	35.29		
	중요하다	27	52.94		
	매우 중요하다	6	11.77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독립 예산 지원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06	0.947
	중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3	5.88		
	중요하다	24	47.06		
	매우 중요하다	18	35.29		
통합협의체 주도의 핵심 자원 공동구매 지원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82	0.932
	중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9	17.65		
	중요하다	24	47.06		
	매우 중요하다	12	23.53		
전문도서관 인식 개선 자료 개발 (우수 사례집 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65	0.913
	중요하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6	11.77		
	중요하다	30	58.82		
	매우 중요하다	6	11.77		
전문도서관의 독점적 특화 정보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 개발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29	1.188
	중요하지 않다	18	35.29		
	보통이다	12	23.53		
	중요하다	9	17.65		
	매우 중요하다	12	23.53		
직무분석을 통한 재교육 및 학부교육과정 개발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5.88	3.53	1.046
	중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9	17.65		
	중요하다	27	52.94		
	매우 중요하다	6	11.77		

V.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슈화가 곧 전문도서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도서관 정책 고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전문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여러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을 통해 언급되고 있으며, 전문도서관 사서들도 전문도서관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현상, 기존 정규직 사서의 은퇴 후 전임인력 미충원 등으로 인해 전문도서관 업무를 온전히 수행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분석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전문도서관은 학계에서도 국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전문도서관만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지난 40년 동안 100편이 되지 않는다. 해외의 경우 전문도서관 학술지까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도전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및 전문도서관 사서 대상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운영측면과 관련하여 전문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력보강, 예산확충, 독립된 공간확보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입안자 및 이용자들의 전문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도서관에 대한 명칭을 통일 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문도서관 소속부서도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지식을 다루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부서의 소속이 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도서관 사서의 역할 확대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전문도서관의 역할은 주로 구성원들의 업무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장서개발과 분석서비스인 것으로 보이며, 전문도서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데이터분석을 포함하여 회색문헌의 적극적인 수집과 보존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는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공간이 아닌 창의적 공간 및 토론의 공간, 아이디어를 창출되는 쉼의 공간임을 고려할 때 공간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문도서관 운영시에 기관내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유도함으로써 전문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 사서들이 적극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국가발전계획에 전문도서관 관련 과제가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도서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서 인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

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및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독립 예산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도서관만의 독립적인 예산이 연간 확보된다면, 책임자가 1년간의 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그 성과를 내서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도서관 통계에의 적극 참여를 통한 현황 평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보면 610여개의 도서관 중 40여개 전문도서관만이 통계입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 및 국민에게 전문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낮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성의 부재로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정부로서 적은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문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 관종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듯이 전문도서관협의회나 특정 구심체를 기반으로 전문도서관 자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인식조사를 통해서 전문도서관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문헌분석의 대상은 KCI에 등재된 논문과 제3차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관련 정책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전문도서관 관련 이슈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문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전문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전문도서관 발전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보강하여야 한다. 현재 조사된 부분을 살펴보면 관련 부분이 너무 약하다. 전문도서관 전문자료의 디지털화 지원, 전문도서관 현황 파악, 전문도서관 인력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법률전문도서관 역할 강화 등으로 파편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도서관에 총체적인 접근하여 전문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와 연관해서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전문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 내용이 제4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주제지도를 통해 상세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612개

의 전문도서관의 유형, 주제 등이 총체적으로 분석되고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정부나 발전계획에서 전문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모별, 주제별, 유형별 분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인지적 실행이 가능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문도서관에 대한 구분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반적인 전문도서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합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특화된 설립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모기관을 지원하는 전문도서관의 특성상 600여개가 통합된 협의체는 밀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 주체별, 주제별, 규모별, 지역별 협의체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통합 협의체를 지원하고 협의체 중심으로 전문도서관이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활성화된 협의체에 소속된 도서관들은 다양한 관종의 각종 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문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서의 직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무분석연구를 수행된 바 있으나 전문도서관 사서의 직무분석연구 수행은 부족한 실정이며, 직무분석 연구도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해서 여러 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도출이 되고,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재교육 과정 및 학부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무분석결과, 필요역량을 알아야만 학부생도 전문도서관에 취업하기 위한 명확한 커리어 패스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전문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정보서비스가 개발될 필요도 있다. 전문도서관은 분명히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정보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다른 각도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방법 등이 요구될 것이다. 전문도서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경험을 가지고 전문도서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빅데이터, AI, VR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반화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을 전문도서관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모기관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재가공 데이터 생산 등 전문도서관이 모기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 인식될 수 있는 서비스도 기획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문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 중 국가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공유가능한 정보원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문도서관 전문자료의 디지털화지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때 각 주제별, 규모별로 대표전문도서관을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전문도서관은 도서관 평가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도서관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참여한 도서관 및 우수도서관에는 파격적인 혜택과 함께 국가로부터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야 정확한 운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여덟째, 전문도서관 우수사례집의 발간도 필요하다. 사실 전문도서관에 대한 사례를 찾고자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도서관협의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지만 최신성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발행 간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국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문도서관이 소속된 기관장과 소속 구성원의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결정자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경우 우수사례집 발간이 용이하도록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의 공모전이나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이 진행되고,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을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매년 새로운 우수도서관을 발굴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이슈를 기반으로 한 향후 정책방향 및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도서관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전문도서관이 도서관의 서비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형곤 (2002). 연구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협력과 정책현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1.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1). 기타도서관주요통계. 출처: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EtcSpecialLibPop.do>
- 김미라 (2014). 전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연구: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상준, 황재영, 박계숙, 최호남 (2008). 전문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9(4), 97-120.
- 김용근 (1997). 전문도서관 정보봉사의 현단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6, 205-234.
- 김정희, 김태수 (2009).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한 전문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3), 69-87.
- 김창근 (2004).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의의와 특징-(3)전문도서관. 도서관문화, 45(2), 25-26.
- 김홍렬 (2012). 전문도서관 기준의 동향과 개정 방향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3(1), 1-22.
- 노영희 (2021). 전문도서관 통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2),

25-47.

- 노정란 (2003). 전문도서관 기반의 지식경영 방법론 연구 - 특히 참고 정보봉사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343-364.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박여원 (2004). CRM 기법의 전문도서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5(1), 51-69.
- 박희숙, 정동열 (2008).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11-43.
- 신동민 (1985). 전문도서관 수서업무 전산화에 관한 연구 - 한국에너지연구소 기술정보실을 중심으로 -. 정보관리학회지, 2(1), 24-49.
- 신두재 (1997). 전문도서관 사서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 심우섭 (2013). 전문도서관 홈페이지의 외부 이용자 웹 접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유정인 (1999).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전문도서관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명희, 백현주 (2014). 디지털 환경의 전문도서관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평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343-361.
- 이용재 (2004). 경쟁환경에서의 전문도서관, 정보센터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155-173.
- 이용재 (2007). 전문도서관 마케팅 경영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335-351.
- 이은희 (1999). 전문도서관 웹페이지 설계 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임지수 (2002). 이용자 피드백을 이용한 전문도서관 전자게시판 개선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혜경 (2005). 전문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개발. 정보관리학회지, 22(3), 147-162.
- 조성자 (1992). 농업경제학분야의 장서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차미경 (2001). 전문도서관 공동 수서의 방법과 전략. 정보관리연구, 32(3), 31-42.
- 최선희 (2008). 국가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도서관 경영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133-148.
- 한중엽, 서만덕 (2013). 기관특성과 개인환경에 따른 전문도서관 직원의 직무만족도 연구. 한국

- 문헌정보학회지, 47(4), 211-233.
- 한중엽, 차성중 (2013).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의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연구 - 2012년도 운영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407-435.
- 황금숙 (1985). 전문도서관 내에서의 외부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황재영, 이응봉 (2006). 디지털환경에서의 전문도서관 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7(3), 99-11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Mikyeong (2001). Cooperative acquisition method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librari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2(3), 31-42.
- Cho, Sung-Ja (1992).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Books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Economics: Focusing on the Data Room of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 Choe, Seon-Hui (2008). Management strategy of specialized libraries to improve national research competitiveness. Proceedings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133-148.
- Chung, Hye-Kyung (2005). A study on economic valuation model of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147-162.
- Han, Jong Yup & Cha, Sung-Jong (2013). An analysis on the results of Korean special library management evaluation conducted in the year 2012.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407-435.
- Han, Jong Yup & Seo, Man Deok (2013). A study on job satisfaction level of employees in special libraries b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background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211-233.
- Hoang, Gum-Sook (1985). A Study on the Use of External Databases in Librarie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wang, Jae-Young & Lee, Eung-Bong (2006). A study on management strategy of special libraries in digital environment: on the basis of special libraries in the field of science

- and technolog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7(3), 99-115.
- Kim, Chang Geun (2004).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2003 edition of the Korean library standard- (3) Specialized Library. *Library Culture*, 45(2), 25-26.
- Kim, Hong Ryul (2012). Trend analysis and revision of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in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3(1), 1-22.
- Kim, Junghee & Kim, Taesoo (2009). A study on special library's user satisfaction with the library service quality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3), 69-87.
- Kim, Mira (2014).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Specialized Libraries: Focused on Defense Section.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Kim, Sang-Jun, Hwang, Jae-Young, Park, Kay Sook, & Choi, Honam (2008).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research librari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9(4), 97-120.
- Kim, Yong Geun (1997). Present status information services in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205-234.
- Ko, Hyoung-Gon (2002). A study on the cooperation and policy issues of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3), 1.
- Lee, Eun-Hee (1999). A Study on the Design Criteria of Web Pages in Specialized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at Chung-Ang University.
- Lee, Myeong-Hee & Baek, Hyun-joo (2014). Evaluation of specialized library service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343-361.
- Lee, Yong Jae (2004).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under the competitive circumstan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2), 155-173.
- Lee, Yong Jae (2007). A study on the marketing management strategy of special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335-351.
-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2019). Third Library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 Lim, Ji-Soo (200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lectronic Bulletin Board in Specialized

- Libraries Using User Feedback: Focusing on the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1). Other Library Major Statistics. Available: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EtcSpecialLibPop.do>
- Noh, Younghee (2021). A study on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 of statistics in speci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2), 25-47.
- Park, Hee-Sook & Jeong, Dong Youl (2008). A study on the developing of evaluation indicators of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11-43.
- Park, Yau-Won (2004). A study o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5(1), 51-69.
- Roh, Jeong-Ran (2003). The study on knowledge management methodology through the reference services, the core of the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343-364.
- Shim, Woo-Seop (2013). Study on the Web Accessibility of Specialized Library Homepage for External Us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Shin, Dong-Min (1985). A study of computerized acquisition systems in research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 24-49.
- Shin, Doojae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of Professional Library Librarians.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Yoo, Jeong-In (1999).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ional Library Librarians through Mailing List: Focusing on Dong-Eui University Library Mailing List.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